

<2025년 재일대한기독교회·일본기독교단 평화 메시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양영우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쿠모시카리 도시미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20:19-20)

자신이 속한 국가를 대표(represent)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훼손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작아지고 깊은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재현(re-present)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어느 문인이 “위기는 단층(单層)이 아니다”고 말한 것처럼, 기독교계도 ‘혼돈’의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인식 아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십자가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즉 부활은십자가의 죽음을 ‘없었던 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슈를 목록(Catalog)처럼 정리하는 것에서 최대한 벗어나 위기의 여러 양상/여러 층위에 내재된 질문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해방 80주년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로부터 80년을 맞이하여, 이 날의 명칭이 <폐전/종전/광복>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 되새겨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때 우리는 누구의 아픔을 받아들였는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국가를 넘어 제국주의/식민지 지배와 전쟁이라는 폭력을 이끌었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모든 존재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일조약 60주년에 대하여

60년 전 두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라는 단어를 기피하고 <경제지원>이라는 명분을 고집했고, 한국은 <경제우선주의>의 필요에 의해 결국 모호한 타협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역사 수정의 동력을 얻었고, 한국은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분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의 의미를, 그리고 ‘보상’이 아닌 ‘경제적 지원’이라는 표현에 집착함으로써 깊은 상처를 입은 개인의 아픔이 묻혀져버리는 길을 만든 것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 근원에는 한반도의 북쪽을 무시하고 <조선적(朝鮮籍)>으로 남겨진 존재에 대해서는 ‘삶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자유’라는 국가의 의지가 깔려 있었다는 점, 그리고 ‘韓日’ 양측 모두가 이에 대한 깊은 회개가 부재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땅과 그의 땅에 쌓인 전쟁에 대하여

“편히 잠드소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새겨진 히로시마의 원폭 위령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일으킨 학살을 사과하기 위해 제주도 성 프란치스코 센터에 세워진 피

에타 동상. 자신을 훼뚫어 보는 이 두 비석이 가리키는 마음의 깊이를 지금 이 순간, 함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한국전쟁(6.25전쟁)을 이 땅의 경제발전의 계기로 <特需 특별한 수요>로 인식해 온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학살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력을 되찾고 ‘세상에는 나와는 다른 아픔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혐오(Hate)에 대하여

在日코리안을 향한 혐오발언(Hate Speech)과 증오범죄(Hate Crimes), 그리고 쿠르드족을 향한 가장 과격한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적대감을 부추기는 국회의원들의 담론이 쏟아져 나오는 위기를 우리 모두 함께 위기라고 분명히 인식했으면 합니다. 합당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함께 사는 것>과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의 갈림길은 왜 생겼는지, <함께 사는>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떻게 정돈되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함께 모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길은 지금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고통과 원전 사고에 의한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아픔을 <찢어지는 심정>으로 공감하고 <심히 불쌍히 여기신> (마태복음 9:36)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빈곤과 격차, 만연한 불평등 속에서

치솟는 물가, 줄어드는 월급, 취업 빙하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억눌린 삶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고 중얼거리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만연하고 있는 <자기 책임>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어느새 내면화하여 <함께 사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SNS 상에서 펼쳐지는 허울뿐인 기호(記号)와 같은 <말>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적대감으로 불안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런 <말>이 가져다주는 불안의 가짜 <해소解消>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을 씻기시는 장면(요한복음13장)을 함께 떠올리고 싶습니다.

삶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인 발을 씻는다는 것, 그것은 더러운 부위를 지적하고 비난하며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를 서로 씻어줌으로써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회개를 잊어버리는 몸짓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韓日>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짚어지고/짊어졌으면서도, 또한 우리가 짚어져야 할 회개의 망각이라는 책임을 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십자가의 구속에 합당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함께 엮어 나가고자 합니다.

2025.8.1

관동지방회

홍옹표목사 위임식 거행 山形우리교회에 새로 부임



2025년 6월 28일(토), 관동지방회 山形(야마가타)우리교회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홍옹표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하였다.

임시당회장 마영렬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관동지방회 부회장 정유성목사가 <성령 충만한 우리교회> (행2:1~4)라는 설교를 하였다.

목사 위임식은 관동지방회장 김신야목사의 사식으로 소개, 서약, 기도후, 홍옹표목사가 야마가타우리교회 위임목사가 된 것을 선포하였다.

권면에는 지방회 서기 강장식목사가 하였다.

이번에 관동지방회로부터 山形(야마가타)우리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홍옹표목사는 1966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목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협성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2000년에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11년~2015년에는 멕시코 선교사로 섬기다가 2015년부터 10년간 관동지방회 키타가미(北上, 岩手県) 벤엘전도소를 섬겼다.

가족으로는 배영선 부인 및 2남(한국체재)이 있다.



서남지방회

합동 하기학교 개최 2교회에서 총53명이 참가해서 학습

7월 19일(토) 오전10시 반부터 21일(월/축) 오후1시까지 서남지방회 교육부와 후쿠오카교회가 합동으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했다.

후쿠오카중앙교회에서 어린이 2명과 봉사자 2명, 후쿠오카교회에서 어린이 21명과 봉사자 18명, 총53명이 참가했다. 교회에 처음인 5명의 어린이가 초대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강사는 조현정 전도사(울산 평강교회)와 오민진권사, 오영훈집사, 그리고 임선희집사가 한국에서 와서 봉사를 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 하는 부흥 대작전”으로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또 공작 시간에는 성령충만한 교회

와 자신의 모습을 만드는 시간도 가졌다. 21일 야외활동 시간에는 블루베리 농장을 방문하여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를 직접 수확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報告:林明基)



동지방회

한일교회 교류회 개최 동지역교회와 교단동경교구 東지구가 합동

지난 6월 22일(주일) 일본기독교단 쿠단교회(쿠단교회는 야스쿠니 신사 앞에 위치한 교회로서 교회설립 150주년을 맞은 교회)에서 모였다.

제1부 예배의 설교는 이은주목사(한사랑교회)가 요 1:1~5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선재”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어서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이고 형제 간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임을 확인하였다.

제2부는 한국에서 초청받아 온 카리스콰이어의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 행사는 매년 6월에 개최되며 한일교회가 번갈아 가지는 모임으로 예배와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친교를 더하고 있다. 교류회가 끝난 이후 남은 회비와 현금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 꼭 필요한 곳에 보내는 작은 선행도 이어가고 있다.

관동지방회의 한사랑교회, 니시아라이교회, 동경성산그리스도교회,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가 참여하고 일본기독교단에서는 8개 교회가 참여하였다.



전북여성회

온라인으로 연수회 개최 ‘harassment 괴롭힘’에 관해 배워

2025년 7월 12일(토) 오후 1시, 전국여성회 선교사회국 주최 연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주제 ‘경계선~boundary Line~’ 부제 ‘넘어서도 안되며 넘어서게 해도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관서학원대학 인간복지학부 교수 이선혜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온라인 연수회에 8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연수에서 ‘harassment 괴롭힘’에 관해 배우고, 이러한 말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흔히 가족으로 비유되는 교회에서는 삶든 좋든 서로 친척과도 같은 친밀함 때문에, 넘어서는 안되는 경계선을 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지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야 할 교회가 괴롭힘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점에서 생각할 필요를 느꼈으며, ‘악의가 없다’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도 느꼈다.

또, 상담창구의 필요성도 깊이 느껴, 전국 여성회나 총회 전체에서 계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기를 기대하며, 충실히 연수 시간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자리 빌려 다시 한번 전국에서 온라인에 참가하신 모든 여성 회원 여러분 및 남성 신도와 교역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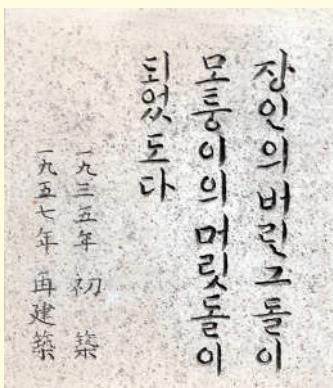


교토교회 창립 100주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교토교회 제1대 예배당



교회학교 제 1 회 출업식



기념하여 이상훈목사를 중심으로 교토교회의 지난 100년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다.

교토교회에는 1929년 10월 6일 이후의 교회일지가 보존되어 있어, 교회사를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일 양국의 새로운 자료를 수집한 결과, 한국 국내에서 남아 있는 교회사 관련 자료 중에 교토교회를 비롯한 교토 지역의 재일 한국인 선교에 관한 기사가 적지 않게 남아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면서 교토 제국대학 등 교토 시내의 학교에 유학한 한국인 학생들이 형성한 신앙 공동체와, 교토 시내 각지(히가시쿠조(東九條), 니시진(西陣), 후시미(伏見) 등)에 있었던 한인교회들과의 관계가 교토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특히 1925년경 시작된 교토 사이인(西院), 미부(壬生) 지역에서 생활하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정예배를 조직화된 예배로 이끈 최명학씨의 경력을 알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는 1898년에 함흥에서 태어나,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해부학 연구를 위해 1928년 교토제국대학 의학부에 입학했다. 1930년 1월 최경학목사가 초대 목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최명학씨가 교토교회의 예배를 인도한 사실이

교회일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940년 이후, 일본기독교단으로의 편입과 일본어 사용 강요, 교토 각지에 있던 교회 및 전도소의 해산과 같은 탄압 가운데서도 교토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48년, 제5대 목사로 전영복(오다 나라지(織田楨次)) 목사가 부임했다. 전영복목사의 조선 전도와 교토교회를 비롯한 재일 대한기독교회에서의 활동은 『지게꾼-조선·한국인 전도의 기록』(일본기독교단 출판국, 1977년)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과 교회에서의 취재를 바탕으로 노리마쓰 마사야스(乘松雅休) 목사와 전영복목사의 조선 선교를 주제로 한 영화 『무명』이 2025년 6월 25일에 한국에서 개봉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교토교회를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다.

그리고 1951년 교토교회가 운영을 인수하며 전영복목사가 원장으로 혼신한 코조샤(向上社)보육원은 2024년에 창립 90주년을 맞이했다. 창립 90주년 기념 강연회에서는 전목사의 손녀인 이토 마리(伊藤眞理) 씨가 보육원 운영에 혼신한 전영복 목사와 오다 시게코(織田重子) 사모의 추억에 대해 들려주었다.

교토교회는 약 2년 반 동안 담임목사가 없었지만, 올해 4월 이성준 목사가 부임하여 5월 18일(주)에는 목사위임식을 갖었다. 현재 교토교회 모든 신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6월 29일(주)에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Homecoming 예배를 드려,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분들을 초대할 수 있었다. 올해 10월에는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10월 5일 주일 오전), 창립 100주년 기념식 및 축하회(10월 26일 주일 오후)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100년의 역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바자회(11월 1일 개최 예정)와 크리스마스 콘서트(12월 24일 개최 예정)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예배와 행사를 통해 지난 100년 동안 교토 땅에서 신앙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신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전역복 목사 추대식

2025년 이성준목사 위임식

NCC 양국 협의회 개최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교회의 역할」 테마로

해방 80주년 및 한일협정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NCC 양국 협의회를 지난 6월 11~13일 한국기독교회관, 경동교회, 연동교회 등에서 개최하였다.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6년 만에 가지면서 한국NCC에서 40명, 일본 NCC에서 24명이 참석하였으며 KCCJ에서는 정수환 총간사를 비롯하여 5명이 참석하였다.

예배와 강연, 별제, 분과토론 등을 하면서 성명서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 생명 가치를 실현하는 선교적 사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복합적 위기를 맞이한 동북 아시아의 상황을 나누면서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동반자로서 대화해 나가야 하며, 기후위기와 탈원전, 사회적 약자의 혐오와 차별, 일본군 위안부 등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또한 양국의 공통 과제인 인구 문제의 심각성도 진단한 참석자들은 “초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삶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긴장과 적대를 만들어내며,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와 비지배문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를 증폭시키는 신자유주의 사회 구조와 결부되어 있다”며 “우리

는 교회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통감하고 타자를 향해 자신을 열어젖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모든 존재를 환대하며 존귀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변혁하는데 책임을 다하도록 연대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고백한다”고 했다.

분과 시간을 통해 선교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성 정의〉, 〈청년세대 평화교육〉, 〈비핵화, 원전문제〉를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알립니다>

● 2025年 8月12日 (火) ~ 15日 (金) 까지, 총회 사무국은 하기휴가로 휴무합니다.

公告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8回 定期総会 召集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8回定期総会を総会憲法第13章(総会)、第60条(定期総会組織)、第61条(定期総会召集)と総会規則第2章(定期総会)、第3章(総代)第3条(総代及び準総代)、に基づいて次のように召集します。

- (1) 標語:『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마태9:37~38)
「収穫のために働き手を送ってください」(マタイ9:37~38)
- (2) 日程: 2025年10月12日(主日) 19:00 ~ 14日(火) 12:00
- (3) 会場: 在日大韓基督教会 福岡教会 福岡市博多区千代5-11-48 (☎092-641-9551)
※「総代・準総代の交通費・宿泊費は各地方会が負担し、女性会・青年会代表はその機関が負担する」
(総会規則 第3章第3条4項)

2025年8月1日

在日大韓基督教会 総会長 梁栄友 書記 李明忠

公告 「第20回 KCCJ人権シンポジウム」案内

- ・主 題: 共に生きるいのちの天幕をひろげよう!
～宣教120周年に向けてKCCJの現在と未来を考える～
- ・日 程: 2025年9月14日(主日)夜~15日(月/休日)
- ・会 場: 在日韓国基督教会館(KCC) *14日はオンラインだけ
大阪市生野区中川西2-6-10 電話(06) 6731-6801
- ・主 催: 在日大韓基督教会(KCCJ) 社会委員会/KCC/西南KCC/RAIK
- ・参加者: KCCJ各教会/社会委員会委員/地方会社会部員/女性会/青年会/
宣教協約団体(日本基督教団、日本キリスト教会)/外キ協・外キ連関係団体
- ・参加費: KCCJ関係者: 5,000円 [交通費補助あり]
- ・他教団の方: 5,000円 14日だけ参加: 資料代: 1,000円
- ・申込先: 在日韓国基督教会館(KCC) 締切: 9月1日(月)
FAX (06) 6718-0988 <https://forms.gle/bEBaFd8ax2oPcpvg5>